

POLITICS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대선후보 첫 TV토론 두고 ‘아전인수’ 해석



‘빛돌이·빛나영’ 24일 결혼

전국 캐릭터 광주로 출동

광주시 대표 홍보캐릭터인 ‘빛돌이’와 여자친구 ‘빛나영’의 결혼식을 콘셉트로 한 ‘2025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을 개최한다.

‘광주 시민의 날’과 연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시청 앞 빛의 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23개 지자체와 기관의 31개 캐릭터가 참여해 ‘빛돌이’의 결혼을 축하하며,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와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아우러지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캐릭터와 교류를 통해 광주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청 아의 공공예술장 ‘빛의 정원’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에는 광주 동구 ‘중장축제프렌즈’, 서구 ‘서해온’, 북구 ‘부끄&부부’를 비롯해 서울 ‘해치’, 부산 ‘부기’, 대구 ‘도달쭉’, 경기 ‘봉공이’, 수원 ‘수원이’, 광주 ‘고마곰’, ‘공주’, 광양 ‘매돌이’ 등 여러 도시의 대표 캐릭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콘텐츠 기업이 선보인 ‘두다’, ‘마법소녀 디디’, ‘다이노맨’ 등 지역 창작 캐릭터들도 행사에 함께하며 문화콘텐츠 홍보에 나선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도립도서관 지원사업 선정

문학 상주작가와 글쓰기 운영

전남도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립도서관은 오는 27일부터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낭독과 필사’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선정돼 운영하는 국비 사업으로, 초보자도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는 문학 입문 과정 운영을 통해 어휘력을 높여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문집 발간과 전시회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상주작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윤소의 동화작가와 함께 운영한다. 윤작가는 2005년 ‘MBC창작동화대상’으로 등단해 꾸준한 작품 발표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27일 개강하는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낭독과 필사’ 과정은 위로와 지혜의 문장을 찾아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 29일 개강하는 ‘나만의 책, 어떻게 시작할까’ 과정에서는 내 인생의 콘텐츠로 책 쓰기와 출간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멘토링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외에도 어린이 작가 캠프 ‘장래희망은 노벨문학상!’, 유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동화작가가 되는 기회로 삼는 ‘엄빠는 동화작가’ 과정, 직장인과 초보자를 위한 토요특강 ‘일상이 문학이 되는 에세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도서관 누리집 (<https://lib.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061-288-5235)로 문의하면 된다.

이귀동 전남도립도서관장은 “앞으로도 도민과의 문화적 교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민주 “왜 이재명 입증”…국힘 “진정성 평가 많아”

개혁 “상대 존중 없어”…네거티브·신경전 비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 결과를 놓고 19일 제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놴다.

유권자의 눈길을 끈 첫 TV토론은 진지한 정책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총론 수준의 공약과 해법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 후보들 간 네거티브를 퍼며 신경전을 주고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회 회의에서 “첫 번째 TV 토론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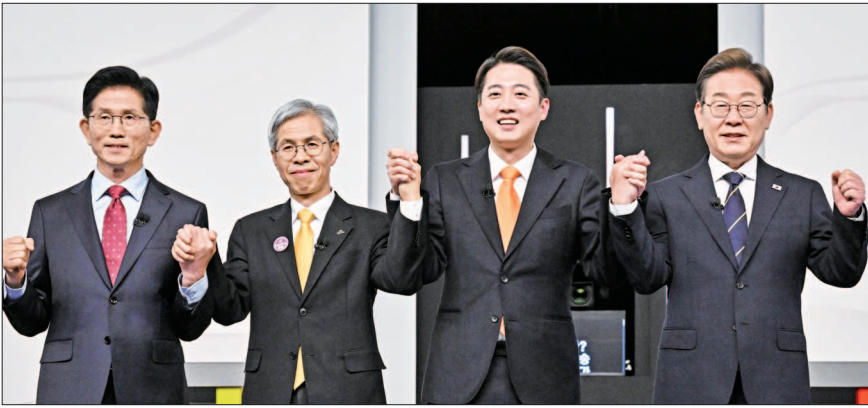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TV 토론은 ‘왜 이재명인가’를 다시 한번 입증한 시간이었다”며 “이 후보는 준비된 후보인 반면, 김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후보

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후보는 어제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토론에 임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라며 “이 후보는 시종일관 곤란한 질문을 피하는 모습과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발언을 해 실망스럽다는 발언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회 회의에서 “어제 TV토론은 이 후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격정·공포 지수만 더 높여줬다”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에 굳건한 김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에 어제 TV토론은 양자 대결 구도에서 김문수의 완승이었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시청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에게 ‘그 래서 어쩌라고요’ 식의 답변을 했던 것 같는데 굉장히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삼양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며 “국민의 상당한 수를 대변하는 정당인 후보에게 답하는 과정에서 ‘어쩌라고요’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 쪽이 아닌 쪽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국 후보의 TV토론에 대해 “이번 조기 대선을 초래한 ‘12·3 사태’의 책임을 강하게 물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은 진지한 정책 경쟁을 보여주지 못하고 상호 네거티브를 주고받아 출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내수 진작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장기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 회복을 역설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유도할 규제 완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고, 이준석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지역 경제 현실에 맞는 최저 임금 자율 조정 등을 역설했다.

이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과거 발언과 행보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쟁점 중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세세’ 발언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 발언을 두고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김문수 후보 또한 미국과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는 발언이라며 거세게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상대 후보들이 자신의 발언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이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환경 이슈와 국가 안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토론이 정책 심층 분석보다는 공방 위주로 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토론하는 오는 23일(사화분야)과 27일(정치분야)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재명 지지선언 잇따라



여수광양권해양협회,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한국선원장에인복지협회는 19일 여수광양권해양협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여수광양권 해운·항만 단체들

“여수·광양권 산업·경제성장 추진 요청”

여수광양권해양협회,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한국선원장에인복지협회 등 3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를 19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문대립)와 전남도당(도당위원장 주철현)은 이날 이같이 전하며 해양·수산업계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당 중앙선대위 문대립 해양수산위원회장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도 함께했다.

여수광양권해양협회는 120개 회원사와 25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여수·광양권 주요 해양단체로서, 여수·광양권의 산업과 경제성장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양항만 항운노조는 조합원 750여명의 뜻을 모아 광양항 발전과 항만노동자 권의 보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회원 15만명을 거느린 한국선원장에인복지협회의 대표자들도 해양수산 정책 강화와 선원복지 향상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하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앙선대위 문 해양수산위원장은 “해양·수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해양강국 도약과 잘사는 어촌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은 “해양·수산 분야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여수·광양권의 경제발전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박근혜 지지모임 “반성 없는 국힘 떠난다”

민주 선대위 화합위 상임위원장에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 임명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박근혜 서포터즈·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정치개혁연대·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경기북부본부 등 7개 단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내란 이후 자기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조차 부정

하며 네 탓으로만 일관하는 파렴치한 당의 정제성에 환멸과 분노를 사이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하려는 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민주당에 정식으로 입당했다.

민주당은 김동원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을 당 선대위 전국민화합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전환’ 등 단체 회원들도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중소·청년창업기업 근로자 투표 보장 약속

일시 | 2025. 5. 19. (월) 13:30 장소 | I-PLEX광주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동구 동명동 I-PLEX(아이플렉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소기업·청년창업기업 투표참여 약속’ 행사에 참석. 아이플렉스 입주 기업 대표들과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약속하는 실천사항에 대해 결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 중소기업, 창업기업, 근로자 투표권 보장한다

아이플렉스 입주기업 대표들, 투표참여 근무환경 조성 약속

강기정 시장 “투표율 92.5% 향해 광주공동체와 함께 된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광주지역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이 함께 된다. 이들은 공명선거 실현 및 광주 투표율 92.5% 달성을 목표로 투표 참여 근무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19일 동구 동명동 I-PLEX(아이플렉스)에서 입주 기업 대표들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소기업·청년창업기업 투표참여 약속’을 개설했다.

지난 13일 지역 경제계 대표들과 근로자 투표권 보장 약속을 위해 공동 실천 결의를 맺은 데 이어 두 번째 지역 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이다.

이번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아이플렉스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 ㈜썬씨이비테크, 다공솔루션, 씨니팩토리, 아이밀, 리바팩, 디자인맘을 등 6개사, 창업기업 JS바이오키퍼니, 마인스페이스즈, 원인터내셔널, ㈜스쿱, 밀리하우스, 노바링크, 리안소프트, 튜비콘, 킨터르 등 9개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들이 사전투표(5월 29~30일)나 본투표(6월 3일)에 불이익 없이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근로자의 주권행사에 대한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근로자 투표권 적극 보장, 근로자 사전투표(5월29일~5월30일)·본투표(6월3일) 자유로운 참여 분위기 조성,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준수, 투표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공동체 발전 기여 약속 등 실천사항을 결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서 광주시 투표참여 캠페인에 활력을 더해줘 감사하다”며 “투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담아 역대 최고 투표율 92.5%를 향해 광주공동체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전남선관위, 오늘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전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오는 24일까지 각 세대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재산과 병역 사항·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포함됐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에 유권자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거나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

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게 된다.

시도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수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에 적힌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